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연중 제 21 주일]

2009년 8월 22일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정종연 베드로, 이민선 데레사
다음주 독서: 이주형 베드로, 임일숙 수산나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이연재 마르코
이번주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다음주 미사 해설: 김리미 멜라니아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친교실 정리: 4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교무금: \$100
봉헌금: \$296.05
합계: \$39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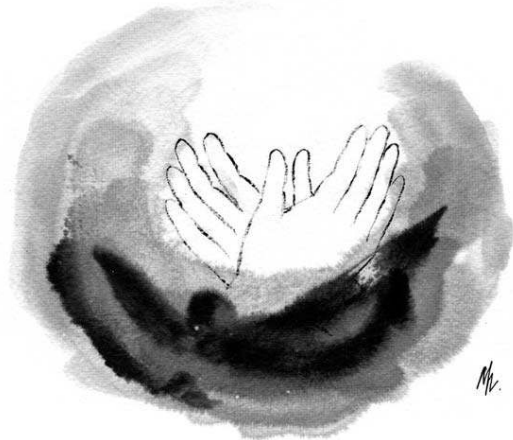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8월 28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금요교리: 신앙입문	격주 금요일 (9월 4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 복음 계속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6,68)

<제 1 독서> 여호수아기 24,1-2 7.15-17.18 나 <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

<제 2 독서> 에페소서 5,21-32 <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큰 신비입니다. >

화답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 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 들으신다. 주님의 열 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

○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짝한 이를 구원해 주신다. ◎

○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그의 뼈를 고스란히 지켜 주시니,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

○ 악인은 악행으로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찢갓을 받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찢갓을 벗으리라.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 요한 6,60-69

복 음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계속

[영성체송] 주님, 땅이 당신 내신 열매로 가득하오니, 당신은 땅에서 난 양식을 먹이시고, 솔로 사람 마음을 흥겹게 하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62 봉헌: 512 성체: 174 파견: 19

†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상설교회사목부

후회하고 계시죠? / 네. / 그런데 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 네? ”

여름휴가를 앞두고 작은 실수로 명동 성당 근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문구용 칼을 잘못 사용하여 손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사무실에는 치료 도구가 없어 만약을 위해 응급실에 갔습니다. 바빠 움직이는 직원들과 119구조대, 경찰 등이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을 데리고 오고 가고 하였습니다. 간호사의 간단한 소독 후에 전문의가 와서 상처를 보고 꿰매면서 저에게 한 말이 “후회하고 계시죠?”였습니다. 물론 병원에 오면서 ‘좀 더 조심할걸, 오늘 말고 다음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하는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친 손가락에 붓대를 감으면서 벗어나지 않게 조심하라는 의미로 “또 후회하지 않도록 하세요”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성당으로 오면서 지금 후회하는데 또 후회하는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다 나을 때까지는 모든 것에 조심 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알아듣기 힘들다고 떠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곁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에 베드로는 모범답안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질문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말씀이기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대답을 해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뺀다고 나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하신 하느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 나쁜 나를 먼저 알고 그런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어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신 분, 나의 부족함이 당신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런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실 때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질문에 옳은 답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옳은 답을 통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화답송 후렴). 그러나 올바른 선택도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깊고 넓게 뿌리내리게 도와주는 누룩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신앙여정을 본받아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어려워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해 주시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 <알려드립니다>

❖ 다음주 미사후 공동체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있겠습니다. 항상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성모회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를 위해서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주실 수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성모회장 임일숙 수산나 자매님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공동체의 재정상황을 지원하는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성당 예비비 기금 모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오늘의 묵상>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예수님께 불만을 토하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스승님은 맥이 빠집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열두 제자를 향한 외침은 꾸중이 아니라 마음을 다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신부님, 성당에 다녀도 뵙쪽한 수가 없습니다. 귀찮고 번거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한두 번 안 나가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네요.” “성당에 다니다 그만두면 하느님께서 벌주시는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냉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불평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것은 내용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말씀의 실천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기적의 열매’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들도 비슷합니다. 그들 역시 ‘은총의 결실’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천에는 게을렀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기쁨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실천이 없으면 은총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만이 누적되고, 시간 낭비라는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발길을 끊게 되는 것이지요. 은총의 체험은 행동에 있습니다. 기도와 성사 생활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바울이>

- 유판식 토마스

